

상처뿐인 러-우크라이나전쟁 3년...종전 협상 '급물살'

트럼프 강력 드라이브...미, 러시아와 고위급 회담 우크라·유럽 패싱 논란...파병 북한군 문제도 논의

오는 24일로 만 3년을 맞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최대 변곡점을 맞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종전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전쟁 당사자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각각 전화 통화를 하고 종전 협상을 즉각 시작하기로 합의했다면서 협상 국면의 문을 열어젖혔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몰아치듯 종전 협상을 위한 총력 외교전에 나섰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역시 기본적으로는 종전협상 자체에는 적극 호응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반대 등 러시아에 편향된 태도를 보이면서 우크라 및 유럽 동맹국에 대한 패싱 논란이 빚어졌고, 이 때문에 종전 논의는 초반부터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도로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일방적으로 양보를 강요당하는 '더티 딜'(dirty deal)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논란을 불식하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물론, 유럽 주요국으로부터 공통분모를 이끌어내는 것이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러 첫 고위급 회담...우크라·유럽, '패싱'에 반발=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2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격적인 전화 통화를 한 뒤 종전 논의가 본격적으로 촉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신호탄을 이어받아 JD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티브 윌트코프 중동특사 등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참모들은 뮌헨안보회의(14-16일) 참석을 비롯해 총력 외교전에 나섰다.

미국은 곧이어 18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러시아와 종전 방안을 논의할 첫 고위급 회담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수년간 제대로 운영되지 않던 대사관 인력 수를 복원하고 대사를 서로 파견하기로 합의하는 등 양자관계 회복에도 의지를 드러내면서 향후 고위급 협상팀이 우호적 분위기로 종전 논의에 속도를 내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낳았다.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 이달 말 전에 푸틴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면서 종전협상의 속도감을 높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먼저 전화를 하며 러시아 입장에 편을 드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러시아 편향' 논란이 촉발됐다.

18일 사우디에서의 장관급 회담도 우크라이나의 참여 없이 마러 간 대화로만 진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 "사실 나는 그것이 전쟁 시작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원인으로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시도를 지목하기도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유럽 주요국은 '패싱' 우려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뮌헨안보회의에서 "우리의

등 뒤에서 합의되거나 참여 없이 이뤄진 평화 협정은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며 마러 밀실협상을 강력 경계했다.

특히 미국이 대러 제재 해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루비오 장관은 러시아와의 회담 후 "(우크라이나) 분쟁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모든 당사자의 양보가 필요하다"면서 "EU(유럽연합)도 러시아를 제재하고 있기에 일정 시점에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황 따라 강경해진 러·우크라 협상 조건...트럼프 등장에 한층 복잡=유럽 국가들엔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구상은 그동안 미국의 정책 일관성을 깨는 일로 받아들여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에는 NATO 내 방위비 부담금 인상을 압박하고 우크라이나가 바라던 나토 가입을 불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서방 진영 내부의 이해 조율부터 난관에 봉착한 모습이다.

기본적으로 러시아는 점령지인 동부 도네츠크·루한스크와 중남부 헤르손 및 자포리자 일부 등을 아우른 영토를 가져가고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포기하면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개전 초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 포기 등 러시아가 주장하는 일부 조건을 수용할 의향을 내비치기도 했지만 우크라이나가 영토 일부를 탈환하고 러시아와 교전이 격화할수록 양측의 협상 조건은 더욱 강경해졌다.

러시아는 '젤렌스키와 협상 불가'를, 우크라이나는 '푸틴과 협상 불가'를 내세우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을 승인해 준다면 러시아 점령지를 완전히 수복하는 걸 포기한 채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식으로 조금 더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나토·영토수복·미군 불가' 트럼프식 종전 가이드라인...복잡한 퍼즐=미국이 그리는 종전안의 밑그림은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등 핵심 참모들의 발언에서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12~13일 벨기에 브뤼셀 NATO 방문 기간 유럽 각국 장관들 면전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및 영토수복, 평화유지군의 미군 참여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와 관련해 "나는 그것이 실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이전 수준으로 영토를 탈환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라면서도 "일부는 되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이는 트럼프식 '종전 가이드라인'으로 해석됐다.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확실한 안전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우리는 진정한 안전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요구하는 '안전보장'은 평화유지군에 미군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헤그세스 장관은 우크라이나에 미군이 파병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는 24일로 만 3년을 맞으면서 종전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2022년 3월 전쟁이 한창일 무렵 우크라이나 군인이 북동부 도시 트로스테야네츠의 파괴된 러시아 탱크 근처에서 서 있는 모습. /연합뉴스

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에 의한 패싱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협상의 선후관계와 유럽 동맹국의 협상 참여 문제도 쟁점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러시아와 협상을 개시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우선순위가 우크라이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우크라이나를 포함하지 않는 미국과 러시아 간 종전협정은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파병 북한군 문제도 협상 테이블 오르나=우크라이나 종전 논의에서 북한군 파병 종료 문제가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러시아와 북한이 여전히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북한군 파병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한국과 미국, 일본 등 각국 정보기관이 모두 기정사실로 여긴다.

우크라이나에 따르면 작년 10월 이후 북한군 특수부대 병력 1만1000여명이 러시아로 파병돼 전선에 투입됐고, 40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다.

특히 러시아군에 배속된 북한군이 교전 중인 쿠르스크는 철군 및 영토 반환 협상 과정에서 제외될 수 없는 지역이다.

종전 협상이 가속하면 어떤 형식으로든 북한군의 쿠르스크 파병 종료 문제가 이 지역에 집합한 우크

라이나군 철군 논의와 맞물려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북한군 문제를 놓고 미국과 북한이 별도의 대화 채널을 직·간접적으로 가동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김정은과 다시 연락을 취해보겠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당시 인터뷰에서 연락 시기나 내용 등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 종전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면서 이를 접점으로 북미 간 의사 교환도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추측을 낳는다.

/연합뉴스

트럼프 "이달 푸틴 만날 가능성...우크라이나 유럽軍 주둔 찬성"

"많은 북한군 죽임 당해" 첫 언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진행된 미국과 러시아 간 고위급 회담에 대해 "매우 잘 진행됐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에 대해) 더 많은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저인 플로리다 주 팜비치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힌 뒤 "러시아는 뭔가를 하고 싶어 한다. 그들은 포악한 야만적인 행동을 멈추고 싶어 한다"고 했다.

그는 전장에서 많은 수의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이 사망하고 있다면서 러시아를 위해 참전한 '북한군(Koreans)도 많은 수가 사망했다. 그들은 싸우기 위해 왔지만, 많은 수가 죽임을 당했다'고 말했다.

러시아나 북한이 북한군의 참전을 공식 확인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공식 석상에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평화협정의 일환으로 종전 후 우크라이나에 유럽이 평화 유지군을 주둔시키는 것에 대해서 "(유럽이) 그렇게 하고 싶다면 그것도 괜찮다. 나는 전적으로 찬성"이라며 "프랑스도 언급했고, 영국도 언급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유럽의 관점에서 보자면 (우크라이나에 유럽의) 군대를 주둔하는 것은 괜찮을 것"이라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 평화 협정이 체결된 뒤에 유럽에서 미군을 모두 철수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도 그렇게 요청하지 않았고, 그래서 나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종전 회담에 우크라이나가 배제된 것

에 대해서 전쟁 발발 당시 자신이 미국 대통령이였다면 전쟁은 시작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나는 이 전쟁을 끝낼 힘을 갖고 있고,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오늘 나는 '우리는 초대받지 못했다'라는 말을 들었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을 향해 "거기에 3년 동안 있었다. 3년이 지났으면 끝났어야 한다"고 했다.

심지어 "나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협상을 할 수 있었다. 그들(러시아)에게 거의 모든 땅을 줄 수도 있었을 것이며 그러면 아무도 죽지 않았을 것이고 도시가 파괴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견을 마친 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이달 말에 만날 것인가'라고 묻자 '아마도'(probably)라고 답해 미리 정성회담이 2월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wilo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